



3rd & 4th Week, September

주간 도내언론 키워드 및 해외 정책동향

Vol. 8

주간 도내언론 키워드 및 해외 정책동향

□ 주간 도내언론 주요 키워드

○ 제주지역 ①정치·행정, ②경제·관광, ③지역·사회 등 3개 분야 언론의 주요 키워드 분석 결과

분야	주요 키워드
정치·행정	청년, 탄소중립, 에너지, 해상풍력, 해녀, 오염훈
경제·관광	관광객, 청년, 여행, 농업수출, 생산, 외국인
지역·사회	차량, 도로, 장애인, 예상, 태풍, 여성

※ 분석 기간 : 9월 19일~9월 27일 ;

대상 언론사 : 한라일보, 제주일보, 제주매일, 제민일보, 뉴제주일보, 제주의소리, 헤드라인제주

○ 정치·행정 분야의 키워드가 도출된 주요 보도 내용(※ 9~10 페이지 참고)

정치·행정	청년	- 청년을 위한 교통비 지원 - 청년 성범죄 대응
	탄소중립	- 탄소중립 농업 실천 - 한중일 환경 협력
	에너지	- 에너지 절감 기술 - 에너지 관리 디지털화
	해상풍력	- 해상풍력 발전 추진 - 해양 생태계 보호
	해녀	- 제주 해녀와 독도 - 해양 환경 보호
	오염훈	- 차고지증명제 폐지 논의 - 국정감사 대비

○ 경제·관광 분야의 키워드가 도출된 주요 보도 내용(* 10~11 페이지 참고)

경제·관광	관광객	- 제주 관광객 증가 - 외국인 관광객 유치
	청년	- 청년 소득 불균형 - 청년 창업 지원
	여행	- 제주 로컬 여행 활성화 - 뱃길관광 지원
	농업수출	- 제주산 흑돼지 수출 - 외국인 계절 근로자 사업
	생산	- 제주 흑돼지 가공 - 지역 농산물 가공
	외국인	- 외국인 관광객 증가 - 외국인 소비 감소

○ 지역·사회 분야의 키워드가 도출된 주요 보도 내용(* 12~13 페이지 참고)

지역·사회	차량	- 차량 연쇄 추돌 사고 -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도로	- 출퇴근길 교통 혼잡 - 걷기 행사 개최
	장애인	- 장애인 이동권 보장 - 장애인 복지 개선 요구
	예상	- 연안 사고 예방 활동 - 태풍 피해 복구 예상
	태풍	- 태풍 피해로 인한 정전 - 태풍으로 인한 도로 침수
	여성	- 여성 강제추행 사건 - 가정폭력 증가

□ 주간 해외(아시아) 정책동향

○ 중국

- ✓ 중국 항공 산업 그룹 주도로 텐진에서 신에너지 수직이착륙 비행기 혁신 공동체가 설립되었으며, 관련 기업과 연구소가 참여하여 자원 공유 및 협업 시스템을 구축함. 이는 저공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 중국 신규 동력 전환 구역에서 스마트카, 수소에너지 등의 첨단 프로젝트를 통해 지속 가능한 녹색 신도시 건설이 가속화됨. 1,400만㎡ 규모의 녹색 건축과 저탄소 기술을 적용하며, 신재생 에너지 인프라를 구축
- ✓ 중국은 외국인 투자 산업 목록을 확대하고 제조업 제한을 해제하여 외국인 투자 유치를 촉진할 계획임. 대형 프로젝트 발굴을 강화하여 국내외 기업 간 협력을 증대하고, 투자 환경을 개선할 방침
- ✓ 중국은 2025년까지 실경 3D 기술을 활용한 지형 분석과 도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임. 이는 스마트 도시 발전과 디지털 농업, 항로 설계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며, 사회 관리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예정
- ✓ 중국 카본 뉴트럴 연구소는 2030년까지 재생 에너지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임. 풍력과 태양광 발전을 중심으로 하며, 2050년에는 재생 에너지 비중을 70% 이상으로 늘려 에너지 공급 안정성을 보장할 예정
- ✓ 중국 국무원은 창업 투자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술 혁신과 산업 업그레이드를 촉진하는 새로운 방안을 발표함. 장기적 투자와 국유 자본의 역할을 강화하여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창업 투자 시장을 확대할 계획
- ✓ 중국 전자상거래 연구소는 전자상거래 시장의 지역 격차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함. 동부 지역이 주도하고 있으나, 서부 지역은 발전이 더딤. 지역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인프라 개선과 디지털 기술 활용 방안을 제안

○ **말레이시아**

- ✓ 말레이시아 국왕이 중국을 공식 방문하여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할 예정임. 양국은 무역, 인프라 프로젝트 등에 대해 논의하며, 이는 동남아시아 국제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
- ✓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는 중소기업 협력에 관한 양자 회담을 진행하며, 중소기업의 녹색 전환과 협동조합 발전을 논의함. 양국은 협력을 강화하여 경제 발전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이니셔티브를 추진할 계획
- ✓ 말레이시아는 2025년 아세안 의장국 수임과 2026년 말레이시아 방문의 해를 대비하여 관광 인프라에 자금을 투입할 예정임. 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해 포괄적인 전략을 마련하고 주요 관광지 업그레이드를 추진 중

○ **ASEAN**

- ✓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약 70.4%가 탄소세 도입을 지지하고 있으며, 탄소세 부담을 감수할 의향이 있음.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는 탄소세 도입을 강력히 지지하며, 이는 에너지 전환과 기후 변화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

○ **베트남**

- ✓ 베트남은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핵 발전 재개를 검토 중임. 에너지 수요 충족과 발전량 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핵 발전 프로젝트 재개를 통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할 계획

○ 인도네시아

- ✓ 인도네시아는 에너지 보조금을 삭감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에 현금 지원을 제공할 계획임. 이를 통해 200조 루피아(약 17조 원)를 절약하고, 민간 기업의 인프라 투자를 촉진해 경제 성장을 도모할 예정
- ✓ 인도네시아는 글로벌 무역 네트워크와의 통합을 목표로 CPTPP 가입을 공식 신청함. 이는 경제 구조 개혁과 수출 시장 확대를 위한 전략적 조치로, 인도네시아의 경제 성장과 무역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 필리핀

- ✓ 필리핀은 인도와 핀테크 부문의 선진화 및 금융 포용성 강화를 위한 협력을 모색하고 있으며, 디지털 결제와 블록체인 기술을 중심으로 핀테크 솔루션 협력을 진행할 예정임.

○ 일본

- ✓ 일본은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학 협력을 논의하고,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디지털 기술과 인재 재교육 방안을 모색함. 대학과 산업계가 협력하여 장기적 인재 양성과 사회적 기여 방안을 추진할 계획
- ✓ 미에현은 이세 신궁과 구마노 고도 등을 활용하여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강화하고 있으며, 관광 인프라 확충과 비건 및 하랄 음식 제공 등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을 통해 관광객 만족도를 높이고 있음
- ✓ 스즈키는 환경 친화적인 전기 모페드를 개발하여 가까운 거리 이동 및 배송 수요를 충족할 예정임. 경량화와 경제성을 추구하며, 도심 지역에서의 실증 실험을 통해 성능을 입증할 예정

- ✓ 오кина와는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무료 버스 실증 실험을 시작하며,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 중임.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 대신 버스 운행 효율성을 높여 교통 문제를 해결할 예정
- ✓ 사가시는 세계 최초로 소각장에서 배출된 CO2를 회수해 재활용하는 “ISCC PLUS” 국제 인증을 획득함. 이는 CO2의 재활용을 촉진하며, 지속 가능한 에너지 사용과 자원 재활용에 기여하는 성과로 평가
- ✓ 오사카는 2024년 방문 외국인 소비액 목표를 2조 엔으로 상향 조정하고, 야간 관광 활성화와 대형 크루즈 선박 유치 등을 통해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임. 2025년 국제 박람회도 관광객 증가에 기여할 전망
- ✓ 시가현은 3년 만에 대규모 관광 캠페인을 재개하고, 후쿠이 및 기후와 연계하여 광역 관광을 촉진할 계획임. 다양한 체험형 관광 프로그램을 통해 일본 및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설정
- ✓ JR 서일본은 중국인 관광객을 위한 AI 기반 맞춤형 관광 코스 제안 앱을 출시할 예정임. 이 앱은 다국어 지원과 JR 티켓 예약, 쿠폰 기능을 제공하며,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강화할 예정
- ✓ 오кина와는 2026년 숙박세 도입을 목표로 정률제를 채택하기로 했으며, 숙박 요금에 비례해 세금을 부과할 예정임. 숙박세는 관광 인프라 개선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Contents

- ☑ 언론분석: Word Cloud
- ☑ 해외(아시아) 정책동향



1 언론분석: Word Cloud

- 2024년 9월 19일~9월 27일 기간, 제주 주요 7개 언론사 홈페이지에서 정치·행정, 경제·관광, 지역·사회 등 분야의 관련 보도 총수는 약 1,054건임
 - 이 중 정치·행정 분야 뉴스 355건, 경제·관광 분야 242건, 지역·사회 분야 457건임
 - * 제주 대표 언론사: 한라일보, 제주일보, 제주매일, 제민일보, 뉴제주일보, 제주의소리, 헤드라인제주
- 355건 정치·행정 뉴스의 워드 클라우드를 살펴보면, 청년, 탄소중립, 에너지, 해상풍력, 해녀, 오염훈 등 키워드로 나타남



[그림 1] 정치·행정 분야 뉴스의 Word-Cloud

○ 정치·행정 분야의 키워드를 산출하는 주요 원인 :

정치·행정	청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을 위한 교통비 지원 · 제주도는 K-패스사업을 통해 청년들에게 교통비를 최대 63만6000원까지 환급해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이 사업은 청년층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대중교통 이용 횟수에 따라 환급액이 달라짐 - 청년 성범죄 대응 · 제주도는 딥페이크 성범죄의 증가에 대응해 청소년 대상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있음. 10대 청소년의 딥페이크 관련 범죄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도내 여러 기관과의 협력으로 예방 교육을 확대하고 있음
	탄소중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탄소중립 농업 실천 · 제주도는 삼나무를 활용한 바이오차기술을 개발하여 농업부문 탄소중립 달성을 추진 중임. 바이오차는 토양의 탄소저장력을 높이는 주요 기술로, 제주 농경지에 적용하고 있음 - 한중일 환경 협력 · 제25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가 제주에서 개최되며, 탄소중립 및 플라스틱 제로 정책에 대한 협력 방안이 논의됨. 이 회의에서 제주도는 2035년까지 탄소중립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을 홍보함
	에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너지 절감 기술 · 제주도 농업기술원이 바이오차 제조기술을 활용한 에너지 절감 및 탄소중립 연구를 진행 중임. 이를 통해 토양 환경을 개선하고 농업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절감할 계획임 - 에너지 관리 디지털화 · 제주농업기술원이 디지털 기반의 농업 관측 체계를 구축해 월동채소의 재배 및 에너지 관리에 대한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이를 통해 농산물 수급 안정에 기여하고 있음
	해상풍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상풍력 발전 추진 · 제주도는 2030년 해상풍력 발전을 통해 재생에너지 비중을 크게 확대할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의 중요한 단계로, 풍력 발전을 통한 에너지 생산을 증대시킴 - 해양 생태계 보호 · 해양 생태계 보호와 동시에 해상풍력 발전을 조화시키기 위한 연구가 진행 중임. 이는 해양 생태계를 해치지 않으면서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려는 노력의 일환임
	해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 해녀와 독도 · 제주 해녀들이 독도에서의 물질을 재현하며 그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는 전시가 열리고 있음. 이번 전시는 독도 수호에 기여한 해녀들의 역할을 다시금 되새기기 위한 목적임 - 해양 환경 보호 · 제주 해녀들과 다이버들이 플로깅을 통해 해양 쓰레기 수거 활동을 진행함. 이 캠페인은 해양 생태계 보호와 관광 자원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노력의 일환임

오영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고지증명제 폐지 논의 · 오영훈 제주지사는 제주도의 차고지증명제 폐지에 대해 검토 중임. 도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해당 제도의 실효성을 재검토하고 있음 - 국정감사 대비 · 오영훈 제주지사는 10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국회의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준비 중임. 이번 감사는 제주도의 주요 현안들을 다룰 예정임
-----	---

○ 242건 경제·관광 뉴스의 워드 클라우드를 살펴보면, **관광객**, **청년**, **여행**, **농업수출**, **생산**, **외국인** 등 단어의 출현 빈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됨



[그림 2] 경제·관광 분야 뉴스의 Word-Cloud

○ 경제·관광 분야의 키워드를 산출하는 주요 원인 :

관광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 관광객 증가 · 10월 1일 국군의 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개천절 연휴에 맞춰 내국인 관광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9월에는 39만 명의 관광객이 제주를 방문할 것으로 전망됨 - 외국인 관광객 유치 · 환영주간행사가 9월 26일부터 제주국제공항에서 진행되며, 외국인 관광객의 증가가 예상됨. 특히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 주요 노선의 북향으로 국제선 여객이 회복 중임
-----	--

경제·관광	청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소득 불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 청년 10명 중 4명이 연간 소득이 2천만 원 이하로 나타났으며, 숙박·음식업 등 저임금 산업종사자 비중이 높음. 청년들의 연간 소득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음 - 청년 창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도는 탐나는전 MZ에디션 체크카드출시를 통해 청년층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이를 통해 청년층의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음
	여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 로컬 여행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도는 지역 주민과 협력하여 가을 제주 로컬여행 100선을 선정했으며,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소개함. MZ세대를 위한 로컬 액티비티와 힐링 프로그램이 포함됨 - 뱃길관광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도는 뱃길 관광활성화를 위해 반려동물 동반 여행객과 자전거·오토바이 여행객에게 여행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 중임
	농업 수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산 흑돼지 수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산 흑돼지가 홍콩으로 수출되며, 홍콩 현지법인설립과 협력 체계를 통해 프리미엄 시장공략에 나섰다. 8월에 흑돼지 6톤이 홍콩에 수출됨 - 외국인 계절 근로자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도는 외국인 근로자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형 외국인 계절 근로자사업을 확대하여 운영 중임. 감귤 및 월동 채소 농가에 지원될 예정임
	생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 흑돼지 가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탐라인영농조합법인은 제주산 흑돼지 가공 처리 기술을 통해 홍콩 시장공략에 주력하고 있으며, 프리미엄 이미지구축에 나서고 있음 - 지역 농산물 가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 소상공인들이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향토 음식 및 특산물을 홍보하고 있으며, 제주종합경기장에서 소상공인 한마음 박람회가 개최될 예정임
	외국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관광객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국제공항의 외국인 관광객이 엔데믹 이후급격히 증가하였으며, 2019년 대비 국제 여객 수가 105%를 초과함. 중국 국경절기간 동안 외국인 관광객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외국인 소비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관광객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소비액은 줄어드는 추세임. 특히 크루즈 관광객의 소비가 적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함

- 457건 지역·사회 뉴스의 워드 클라우드를 살펴보면, 차량, 도로, 장애인, 예상, 태풍, 여성 등 키워드로 나타남



[그림 3] 지역·사회 분야 뉴스의 Word-Cloud

○ 지역·사회 분야의 키워드를 산출하는 주요 원인 :

<p>차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 연쇄 추돌 사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시 조천읍 와흘교차로인근에서 차량 4대가 연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함. 이 사고로 3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됨 -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 지역에서 고령 운전자의 면허 반납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 2023년에는 1304명이 면허를 반납했으며, 이는 고령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정책의 일환임
<p>도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퇴근길 교통 혼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시내 도로에서 출퇴근 시간대 차량 혼잡이 심화되고 있으며, 교차로에서의 무리한 차선 변경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있음 - 걷기 행사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도는 오는 28일 연복로 구간에서 차량 통행을 통제하고 걷기 행사를 개최. 시민단체들은 실효성 부족을 지적하며 비판하고 있음

지역·사회	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이동권 보장 · 제주 지역 장애인 단체는 대중교통의 접근성을 높이고,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마련을 요구함 - 장애인 복지 개선 요구 · 장애인 단체는 공공시설 내 편의시설 확충과 관련된 법적 규제를 강화할 것을 요구하며, 제주 내 복지 서비스 개선을 촉구하고 있음
	예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안 사고 예방 활동 · 제주 해경은 가을철 연안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출입 통제 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으며, 안전시설 보강을 통해 사고를 예방하고 있음 - 태풍 피해 복구 예상 · 최근 발생한 태풍으로 인해 제주 전역에서 피해가 발생했고, 제주도는 피해 복구 작업을 통해 피해 지역을 지원할 계획임
	태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풍 피해로 인한 정전 · 제주시 애월읍 등지에서 태풍으로 인한 강풍이 발생하여 500여 가구에 정전 피해가 발생함. 피해 복구 작업이 진행 중임 - 태풍으로 인한 도로 침수 · 태풍으로 인해 제주 전역의 도로가 침수되었으며, 이로 인해 교통에 큰 혼란이 발생함. 긴급 배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음
	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 강제추행 사건 · 서귀포 경찰서 소속의 한 경찰관이 길거리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됨. 추가 조사가 진행 중임 - 가정폭력 증가 · 제주 지역에서 최근 3년간 가정폭력 신고가 급증했으며, 긴급 보호 조치 피해자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2 해외(아시아) 정책동향

지역	제목 및 주요 내용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신에너지 수직이착륙 비행기 혁신 공동체' 설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에너지 수직이착륙 비행기 혁신 공동체가 중국 항공 산업 그룹과 관련 기업 주도로 천진에서 설립됨. 이 공동체는 신기술의 산업화를 촉진하고, 자원 공유와 협력 시스템을 통해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이 공동체는 전국의 관련 기업과 연구소가 참여하여 혁신적인 협업을 강화하고, 산업 발전을 도모함. 이를 통해 기술 발전을 가속화하고 산업 경쟁력을 높임 - 천진항 보세구 위원회는 이 공동체 설립이 저공 기술 인프라 확장을 촉진하며, 저공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발표함 <p>* 출처: 中国新闻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녹색 신도시' 건설 가속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신규 동력 전환 구역에서 녹색 건축과 에너지 혁신 프로젝트가 가속화되고 있음. 이는 스마트카, 수소에너지 등 첨단 프로젝트를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 것임 - 1400만㎡ 규모의 녹색 건축이 진행 중이며, 저탄소 건축 기술이 적용될 예정임. 녹색 에너지 인프라가 구축되고 있어 저탄소 기술의 상용화가 기대됨 - 수소에너지 및 태양광 프로젝트는 신재생 에너지의 상용화를 촉진하고 있으며, 스마트 교통 시스템도 병행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추진 중임 <p>* 출처: 中国新闻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외국인 투자 유치 계획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를 위해 2024년 외국인 투자 산업 목록을 확대할 계획임. 이로써 외국인 투자 자유화와 편리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임

지역	제목 및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업 분야에서 기존의 제한 조치가 해제되며, 이는 중국의 경제 글로벌화에 기여할 것임. 또한 경제 성장을 더욱 가속화하는 데 기여할 것임 - 외국인 투자 대형 프로젝트 발굴서비스 개선을 통해 국내외 기업 간 협력을 강화하고 투자 환경을 더욱 개선할 계획임 <p>※ 출처: 中国新闻网</p>
중국	<p>○ 중국, 2025년까지 '실경 3D 중국' 구축 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자연자원부는 2025년까지 실경 3D 중국을 구축할 계획을 발표함. 이 프로젝트는 지형 분석, 도시 관리 등에 사용될 3D 기술을 통해 디지털 경제와 스마트 도시 발전에 기여할 것임 - 지형급, 도시급, 부품급의 3D 기술이 고속철도 건설, 항로 설계 등에 적용될 예정이며, 디지털 농업과 저공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계획임 - 이는 디지털 경제 발전과 사회 관리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스마트 도시 구축에 기여할 것임 <p>※ 출처: 中国新闻网</p> <p>○ 중국, 신형 전력 시스템 기술 로드맵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카본 뉴트럴 연구소는 신형 전력 시스템 기술 로드맵을 발표하고, 재생 에너지 발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공개함. 2030년까지 재생 에너지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임 - 풍력과 태양광 발전이 주요한 역할을 하며, 석탄 발전소는 유연성 보장을 위해 지원적 역할을 할 예정임. 저장 장치와 에너지 유연성도 향후 중요한 기술로 부각될 것임 - 2050년~2060년에는 재생 에너지비중을 70% 이상으로 확대하고, 에너지 유연성 자원을 통해 에너지 공급 안정성을 보장할 계획임 <p>※ 출처: 中国新闻网</p>

지역	제목 및 주요 내용
	<p>○ 중국 국무원, 창업 투자 촉진 방안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국무원은 창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방안을 발표함. 기술 혁신과 산업 업그레이드를 촉진하고 질적 성장을 목표로 함 - 창업 투자 시장의 원활한 자금 흐름을 위해 국내외 상장 지원과 인수합병을 촉진할 방침임. 이를 통해 창업 투자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산업 경쟁력을 높일 계획임 - 장기적 투자와 전략적 투자를 장려하며, 국유 자본이 책임 있는 장기 자본으로서 더 큰 역할을 하도록 촉진할 예정임 <p>* 출처: 经济参考报</p>
중국	<p>○ 중국 전자상거래, 지역 격차 분석 보고서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전자상거래 연구소는 전자상거래 시장의 지역 격차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함. 동부 지역이 여전히 전자상거래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서부 지역은 상대적으로 발전 속도가 느림 - 동부 지역은 매출의 86.8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전자상거래 산업의 집중도를 보여줌. 서부 지역의 발전을 위한 인프라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함 - 보고서는 지역 간 전자상거래 혁신 메커니즘 구축과 디지털 기술의 활용을 통해 지역 간 격차를 줄이는 방안을 제안함 <p>* 출처: 经济参考报</p>
말레이시아	<p>○ 말레이시아 국왕, 중국 방문...양국 협력 강화 기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말레이시아 국왕이 중국을 공식 방문하여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됨. 50주년 외교관계를 기념하여 전략적 협력과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임 -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과 국무총리 이창과의 회담에서 양국 간 무역 및 경제 협력이 주요 의제로 다루어질 전망임. 양국 간 협력이 동남아시아국제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지역

제목 및 주요 내용

말레이시아

- 말레이시아는 아세안 의장국으로서 중국과의 협력을 더욱 확대할 방침이며,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협력도 기대됨

* 출처: 马新社

○ 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 중소기업 협력 강화 논의

-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는 푸트라자야에서 중소기업 및 협동조합 개발에 관한 양자 회담을 진행했으며, 이번 회담은 2023년 자카르타 회담의 후속 조치로 진행됨
- 양국은 중소기업 부문의 협력을 강화하고, 말레이시아의 '녹색 전환을 위한 중소기업 최고 기관' 설립에 대해 논의하며, 인도네시아의 지지에 대해 말레이시아가 사의를 포함
- 이러한 협력은 양국 경제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며, 양국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이니셔티브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임

* 출처: Bernama, ASEAN.org

○ 말레이시아, 관광 분야에 자금 확대 계획

- 말레이시아 재무부는 2025년 아세안 의장국 수임과 2026년 말레이시아 방문의 해를 대비하여 관광 부문에 충분한 자금을 배분할 계획임. 이는 관광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글로벌 인지도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임
- 말레이시아는 전국적으로 관광 인프라를 강화할 계획이며, 특히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분야를 우선적으로 개선할 예정임. 관광 문화부와의 협력을 통해 관광 안내사 설립 및 업계 관계자들에 대한 지원 방안도 모색 중임
- 재무부는 관광 부문을 강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의견 수렴을 진행 중이며, '2025년 예산 로드쇼'를 통해 국가 경제 성장을 위한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피드백을 반영할 예정임

* 출처: The Edge Malaysia, NST Online

지역	제목 및 주요 내용
<p style="text-align: center;">ASEAN</p>	<p>○ 동남아시아, 탄소세 도입에 긍정적 반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약 70.4%가 탄소세 도입을 지지하고 있으며, 93%의 응답자가 탄소세 부담을 기꺼이 감수할 의향을 밝힘. 이는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됨 -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는 탄소세 도입을 가장 강력히 지지하는 국가들로, 특히 베트남은 75%의 높은 지지율을 보임. 싱가포르의 상대적으로 낮은 지지율을 기록함 - 탄소세와 연료 보조금 철폐에 대한 논의도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에너지 전환을 촉진하는 중요한 정책적 도구로 평가됨. <p>* 출처: 新加坡尤索夫伊萨东南亚研究院</p>
<p style="text-align: center;">베트남</p>	<p>○ 베트남, 핵 발전 재개 계획 검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트남 정부는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경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핵 발전 재개를 검토 중임. 이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려됨 - 베트남은 핵 발전을 통해 에너지 수요를 충족하고, 매년 12%~15%의 발전량 증가를 목표로 설정함. 러시아와 일본의 기술 협력을 받았으나, 프로젝트는 예산 부족으로 지연됨 - 2016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이후 핵 발전 계획이 연기되었으나, 최근 에너지 전환 필요성이 대두되며 핵 발전 재개가 논의되고 있음 <p>* 출처: 로이터(Reuters) 통신사</p>
<p style="text-align: center;">인도네시아</p>	<p>○ 인도네시아, 에너지 보조금 삭감으로 133억 달러 절약 목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 당선인은 에너지 보조금을 삭감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에 직접적인 현금 지원을 제공하는 정책을 계획하고 있음. 이를 통해 최대 200조 루피아(약 17조 3,200억 원)를 절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지역

제목 및 주요 내용

- 2023년 기준으로 인도네시아의 연료 보조금은 500조 루피아 (약 43조 원)에 이르렀으며, 이는 전체 예산 지출의 약 16%를 차지한 바 있음. 새 정부는 이러한 보조금 지출을 줄여 경제를 재정비할 예정임
- 인도네시아 차기 정부는 에너지 보조금 삭감 외에도 경제 성장률을 현재 5%에서 8%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민간 기업의 인프라 투자를 활성화하여 경제 성장을 촉진할 계획임

* 출처: The Edge Malaysia, Indonesia at Melbourne

○ 인도네시아, CPTPP 가입 공식 신청

- 인도네시아는 수출 시장 확대를 목표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CPTPP)에 가입을 공식 신청했으며, 이를 통해 글로벌 무역 네트워크로의 통합과 투자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 장관은 CPTPP 가입이 경제 구조 개혁과 시장 접근성 강화를 위한 중요한 전략의 일환이라고 설명하며, 협정을 통해 수출 시장 확대와 글로벌 통합을 가속화할 계획임
-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 당선인은 CPTPP 가입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으며, 이는 인도네시아의 경제 성장과 무역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출처: Asia Financial, Reuters

필리핀

○ 필리핀, 인도와 핀테크 협력 추진

- 필리핀 재무부는 인도와 협력하여 핀테크 부문의 선진화와 금융 포용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양국은 2024년 9월 12일 뉴델리에서 공동 실무그룹을 설립함
- 양국은 디지털 경제와 규제 프레임워크를 개선하기 위해

지역

제목 및 주요 내용

논의했으며, 특히 디지털 결제 및 블록체인 기술 등의 핀테크 솔루션에 중점을 두고 향후 협력을 이어갈 예정임

- 필리핀 핀테크 부문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8% 이상 성장했으며, 인도와의 협력을 통해 강력한 금융 포용적 생태계를 구축하고, 향후 핀테크 기업들의 성장을 지원할 계획임

* 출처: Business Mirror, Bilyo Naryo

일본

○ **인구 감소, 산학 협력으로 해결 모색 - 관계자 심포지엄**

- 일본 경제신문사와 일본경제연구센터가 주최한 “간사이 경제인·에코노미스트 회의“에서 인구 감소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산학 협력 방안이 논의됨. 교토, 오사카, 고베의 세 대학 총장들과 산업계 리더들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함
- 교토대 총장 미나토 나가히로는 인구 감소 문제를 고령화와 저출산이라는 두 가지 요소로 나누어, 각각에 맞는 해결책이 필요함을 강조함. 고령화 문제는 서서히 진행되므로 빠른 대응이 어려워 대학이 리더십을 발휘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함
- 고베대 총장 후지사와 마사토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의료 자동화 및 효율화를 통해 고령자가 활발히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함. 오사카대는 기업의 인재 재교육에도 힘을 기울여 장기적인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출처: 日本經濟新聞

○ **미에현, 방문 외국인 관광객 유치 가속화**

- 미에현은 이세 신궁과 구마노 고도를 활용해 방문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세계유산 등록 20주년을 기념하여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음. 이 지역의 관광 자원은 방문객의 관심을 끌고 있음

지역

제목 및 주요 내용

- 현지 숙박시설은 더 많은 외국인을 맞이하기 위해 영어와 일본어로 예약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개발하고, 지역 특색을 반영한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 중임. 숙박 인프라를 개선해 관광객의 편의를 높이고 있음
- 또한, 현은 비건 및 하랄 음식을 제공하는 옵션을 늘려 다양한 식문화와 종교적 요구를 충족시키고 있으며, 이를 통해 방문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출처: 日本經濟新聞

일본

○ 스즈키, 전기 모페드 개발로 새로운 이동 수단 제시

- 스즈키는 기존 50cc 이하의 엔진 오토바이를 대체할 전기 모페드를 개발 중임. 이는 가까운 거리의 이동 및 배송 수요를 충족시키는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음. 특히 환경 친화적인 전기화를 도입함으로써 탄소 중립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스즈키의 전기 모페드 모델은 전기 보조 자전거의 부품을 활용해 경량화와 경제성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음. 모터와 페달을 결합한 구조로, 기존의 모터사이클과는 다른 운전 경험을 제공함
- 스즈키는 2023년 전시회에서 시제품을 공개하고, 도심 지역에서의 실증 실험을 통해 성능을 입증함. 기존의 오토바이와 비교하여 무게가 1/3에 불과해 보다 다양한 사용자층의 관심을 끌 것으로 예상됨

* 출처: 日本經濟新聞

○ 오키나와, 교통 혼잡 완화 위해 무료 버스 실증 실험 시작

- 오키나와 현은 심각한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버스 요금을 무료로 하는 실증 실험을 시작함. 이 실험은 마이카 의존도를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행됨
- 무료 버스 이용 첫 주말에는 주요 관광지로 향하는 노선에서 승

지역

제목 및 주요 내용

일본

객이 몰려 만차로 인해 탑승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었음. 일부 기업은 “노 마이카 데이”를 통해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고 있음

- 오키나와 현은 지하철 등 대규모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 어려운 만큼, 대중교통을 통한 교통 혼잡 완화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버스 운행 효율성을 높여 장기적인 교통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출처: 日本經濟新聞

○ 사가시, 소각 CO2 회수로 국제 인증 획득 - 세계 최초

- 사가시는 쓰레기 소각장에서 배출된 CO2를 회수하여, 이산화탄소가 바이오매스 등 지속 가능한 원료에서 비롯되었음을 증명하는 “ISCC PLUS” 국제 인증을 세계 최초로 획득함
- 사가시의 청소 공장은 소각된 쓰레기를 바이오매스 발전으로 변환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회수된 고농도 CO2를 인근 농업 하우스와 바이오 연구소에 제공하고 있음. 이를 통해 CO2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있음
- 이번 국제 인증 획득은 사가시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사용과 자원 재활용에 기여하는 성과로 평가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CO2 활용을 더욱 확대할 계획임

* 출처: 日本經濟新聞

○ 오사카, 방문 외국인 소비액 목표 2조 엔으로 상향

- 오사카 관광국은 2024년 방문 외국인 소비액 목표를 기존 1조 6천억 엔에서 2조 엔으로 상향 조정함. 이는 면세점 판매와 관광객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꼽힘
- 관광국은 방문객의 소비 단가를 높이기 위해 야간 관광 활성화와 대형 크루즈 선박 유치에 중점을 두고 있음. 특히, 초부 유층을 겨냥한 슈퍼요트 유치를 통해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할

지역

제목 및 주요 내용

일본

계획임

- 오사카는 2025년 국제 박람회와 통합형 리조트(IR) 개장을 앞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 관광객 수와 소비액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출처: 日本經濟新聞

○ 시가현, 3년 만에 대규모 관광 캠페인 재개

- 시가현은 3년 만에 대규모 관광 캠페인을 재개하며, 인근 후쿠이, 기후와 연계하여 광역 관광을 촉진할 계획임. 이 캠페인은 2025년 오사카 박람회를 겨냥해 체험형 관광지과 식문화를 홍보함
- 시가현은 전기차 드라이브 이벤트와 전통 주조장 투어를 포함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며,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음. 또한, 방문객들이 사용할 수 있는 할인 쿠폰 북도 배포할 예정임
- 이번 캠페인은 시가현의 관광 자원을 알리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일본 전국 및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목표를 하고 있음

* 출처: 日本經濟新聞

○ JR 서일본, 중국인 관광객 대상 앱 출시 예정

- JR 서일본은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 앱 “西日本旅游攻略tabiwa”를 10월 하순에 출시할 예정임. 이 앱은 JR 서일본의 철도 노선과 관광지를 안내하며, AI를 통해 사용자의 취향을 분석하여 맞춤형 관광 코스를 제안함
- 앱 사용자는 JR 티켓을 온라인으로 예약하고, 쿠폰을 사용할 수 있음. 또한, 방문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다국어 지원도 추가될 예정임
- 이번 앱 출시를 통해 서일본 지역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강화하고, 증가하는 중국인 관광객의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지역

제목 및 주요 내용

일본

계획임

* 출처: 日本經濟新聞

○ 오키나와, 숙박세 도입 위해 정률제 검토

- 오키나와 현은 2026년부터 도입을 목표로 하는 숙박세에 대해 정률제를 채택하기로 결정함. 숙박세는 숙박 요금에 비례해 부과되며, 이는 기존 정액제보다 더 공정하다는 의견이 많아 현지 숙박업체들의 지지를 받고 있음
- 이번 검토에서 오키나와 현은 세금 부과 상한선을 설정할 예정이며, 이는 재난 발생 시 관광객을 위한 숙소 확보와 관광 인재 육성 등 추가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필요함. 상한선은 다른 지역의 사례를 참고해 구체적으로 결정될 예정임
- 오키나와 현은 숙박세 도입을 통해 증가하는 관광 수요에 대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광 인프라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현지 5개 자치단체는 세금 배분에 대해 현과 협의할 예정임

* 출처: 日本經濟新聞